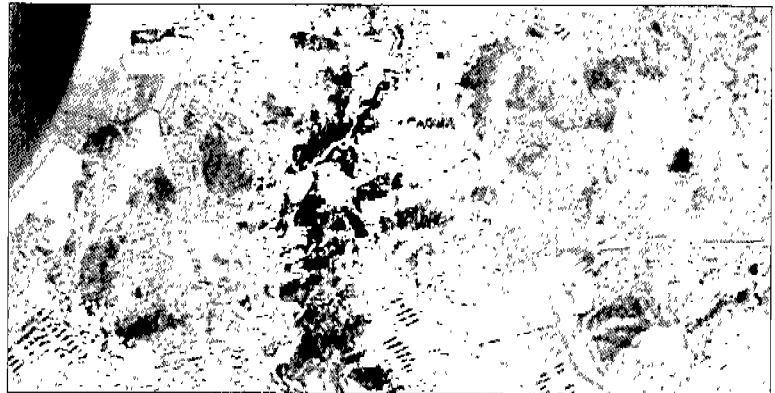


아리랑 1호 위성영상자료 본격 배포



아리랑 1호 ECC영상과 우리별 3호 영상의 융합한 목포전경

한국항공우주연구소는 아리랑 1호에 대한 정규배포를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하였다.

지난 12월 21일 발사된 아리랑 1호는 그동안 초기운영을 마치고 시험운영과 영상자료에 대한 시험 배포를 거쳐, 본격적으로 위성의 자료를 공공목적과 상용분야를 병행하여 배포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항공우주연구소는 공공분야 배포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상용분야 판매대행 업체로 한국항공우주산업(주)가 지정되었다.

공공 및 연구기관이 항공우주연구소에 자료를 신청할 경우 항공우주연구소 검색 인터넷 홈페이지 (<http://krps.kari.re.kr>)를 통해 검색하고 자료를 신청하면 된다(연구기획부: 042-860-2124, moncjh@kari.re.kr). 영상자료 가격은 실비로서 1scene당 5만원으로 책정되었다. 상용분야에 대한 자료배포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위성영업팀:02-

2001-3941)가 전담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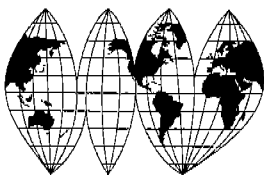
한편 지난 6월1일 현재 아리랑 1호 위성은 지구를 총 2,428 궤도 선회하였으며, 고해상도카메라 (EOC)는 국내 54pass 등 국내의를 총 154 pass (1 pass 당 영상은 50 ~ 60 scene) 촬영하였다. (항우연 정예준)

민수용 헬기

중국 형식증명 획득

한국항공우주산업(주)는 세계최대의 헬리콥터 제작회사인 미국의 벨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SB427 헬리콥터(6,000LBS급 쌍발 경헬기)가 지난 4월 중국 민항총국으로부터 형식증명을 획득하였다.

이번 SB427 헬리콥터의 국내 형식증명 획득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주)는 국내 최초로 민수용 완제기인 SB427을 국내에서 최종조립 및 판매/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국내 수요에 대한 국산 헬리콥터로 수입대체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를 수출 주력 제품화할 계획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는 향후 12년간 460여대의 완제 헬리콥터를 생산할 계획이며, 아울러 벨사와의 계약에 따라 동 헬기의 전 세계 수요에 대한 동체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금년 중 10여대를 추가 수주할 계획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김철수 과장)

고등훈련기 T-50과 경공격기 A-50의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위한 첫 'Supplier Symposium' 개최

한국항공우주산업(주)는 지난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Four Seasons Resort에서 현재 개발중에 있는 고등훈련기 사업(T-50/A-50)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첫 'Supplier Symposium' 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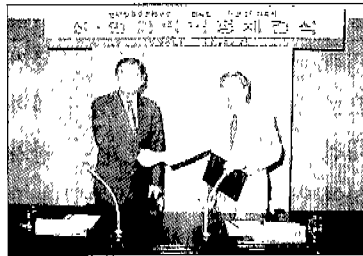
한국항공우주산업(주)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서 해외업체 공급품목 및 항공기의 시스템 집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고등훈련기(T-50) 체계개발 사업진행에 대한 경과와 부품구매 및 품질방침을 소개하였다. 또한 통합법인으로 출범하여 항공분야의 국내 유일의 항공우주산업업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참여 업체간의 협력과 유대체계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Adex Aerospace Co 등 해외 40업체 80여명을 포함하여 관련인사 총 120

여명이 참가하였다.

한편 T-50 Golden Eagle 고등훈련기 및 A-50 Golden Eagle 경공격기는 현재 개발중에 있으며, 시제기 생산은 2000년 말경부터 시작하여 2005년 말경에 양산에 돌입할 예정으로 있으며, 전 세계 각국에는 2005년부터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김철수 과장)

항우연-한국항공우주산업(주) 연구협력 체결식 개최



항우연과 한국항공우주산업(주)는 연구협력 체결식을 개최하였다.

한국항공우주연구소(소장 崔東煥)와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林寅澤)는 우리나라 항공우주기술개발과 항공우주산업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기술개발 활동에 있어서 상호 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지난 6월 22일 오후 4시 한국항공우주연구소에서 열린 협정 체결식에는 양 기관의 대표가 참석, 협약서를 교환하고 향후 국내 항공우주기술개발의 발전방향과 상호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항우연 정예준)

경상대학교 항공기부품기술 연구센터 '제2회 경상대-순천대-여수대 RRC 공동학술 세미나' 개최

경상대학교 항공기부품기술연구센터는 순천대학교 자동차부품 및 소재연구 개발센터와 여수대학교 설비자동화 및 정보시스템연구센터와 공동 주관으로 지난 6월 16일(금)에 경상대학교 멀티미디어실에서 6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경상대-순천대-여수대 RRC 공동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국내 공학기술관련 산업체, 학계 및 연구기관의 기술교류를 통해서 산·학·연·관의 상호 기술협력체제의 정착을 위해 개최된 동 세미나에서는 순천대 3건, 여수대 2건, 경상대 3건의 공학기술관련 논문발표가 있었다.

본 공동학술세미나는 산·학·연·관의 지역에 관련된 기술의 상호교류를 위한 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세 지역협력연구센터(RRC)의 학술교류 및 정보공유 등 21세기의 새로운 동반자적 입장에서 협력할 수 있는 작은 시발점으로 활용되었다. (경상대 임현수)

인공위성 위치확인시스템(GPS) 시장 활성화 전망

미국 국방부가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확인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에 대해 민간분

야에 제공할 경우 전략적으로 '의도적 오차'가 있도록 하던 것을 지난 5월부터 해제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GPS 분야가 활기를 띠 전망이다.

미 국방부는 지금까지 민간분야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이유로 100m 이상 오차를 의도적으로 내도록 했으나 이번에 이를 전면 해제함에 따라 GPS 수신률이 크게 향상된 것. 국내의 경우 이미 GPS와 함께 전자지도를 탑재한 차량항법장치를 부착한 승용차가 1만여대를 넘어섰으며 콜택시나 화물차량 등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져 향후 정밀한 GPS 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시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GPS 수신기 조립기술이 도입된 96년 이후 국내 GPS 시장은 이동통신과 항법 시스템을 중심으로 40% 이상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3만여개의 선박운항시스템과 1만2천곳 이상의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GPS는 2005년에는 시장규모가 최소 1조2천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GPS 사업활성화를 위해 해양부와 행자부, 건교부, 과학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2002년까지 전국의 육상, 해상, 항공의 고정밀 GPS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GPS의 폭발적인 수요에 대비, GPS 서비스 정밀도를 단계적으로 향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안정적인 서비스 확보를 위해 선진국과 GPS 및 유사시스템 구축과 활용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 국제표준화 활동에도 적극 대처키로 했다.

<2000-05-12 한국경제신문>

경상대학교 항공기부품기술 연구센터 '2000 경상남도 과학대전 및 산업기술박람회' 참가

경상대학교 항공기부품기술연구소는 지난 4월 21일(금)~23일(일)까지 창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 전시장에서 「경남의 미래, 과학과 기술로」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2000 경상남도 과학대전 및 산업기술박람회'에 참가하여 연구 결과물을 전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경상남도, 경남지방 중소기업청, 한국과학문화재단 공동주최로 기술개발, 유관기관 및 중소기업들의 우수기술 및 제품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술정보 교류를 통해 경남 지역중소기업의 기술에 관한 인식제고 및 기술개발 의욕고취를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경상대학교 항공기부품기술연구소는 '경남산업기술박람회'의 지역협력연구관에 7개의 전시품 소개와 홍보를 하였다. (경상대 임현수)

항공기 소재부품 품질인증 워크샵 개최

한국기계연구원이 주최하는 항공

소재부품 품질인증 워크샵이 지난 5월 2일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샵은 산업자원부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으로 한국기계연구원 창원분원을 비롯하여 11개 산학연이 공동참여 추진하고 있는 '항공 우주용 소재부품 개발(ATEC)' 사업을 통하여 핵심 항공기 부품이 국산화됨에 따라 품질인증 개념·절차 및 준비내용에 대한 교육 필요성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항공기 소재부품의 품질인증의 개념에서부터 실제 품질인증 획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항공기 부품개발 실무종사들에게 품질인증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었다.

품질인증 개념에 대해서는 항공우주연구소의 이종희 박사가 강연하였고, 항공기 재료의 품질인증에 대해서는 한국항공의 박용기 박사가 강연하였다. 또한 항공기 소재부품 품질인증 획득사례에서는 한국로스트왁스의 장병문 부장이, 마지막으로 군용기의 품질인증에 대해서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최낙윤 박사가 발표하였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핵심 항공기 소재부품 국산화과정의 최대 걸림돌인 품질인증의 실체에 대한 이해와 방법론을 터득하는데 큰 학습효과가 있었다. (기계연구원 하재우)

한국기계연구원-한국항공우주 연구소 기술교류회 개최

한국기계연구원(KIMM)과 한국항공우주연구소(KARI)간의 기술교류회가 5월 26일에 대전소재의 항공우주연구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기계연구원이 국내 항공우주 부품소재 연구기관구축의 일환으로 양 연구소간의 연구개발 내용을 상호 이해하고, 국내 항공우주 산업발전을 위한 협력 동반자로서 그 역할을 정립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항공우주연구소는 국내 항공우주 시스템 연구개발의 중심지로서 인공위성사업을 비롯하여 로켓 및 항공기개발에 선두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에 기계연구원은 시스템에 장착되는 부품과 소재중심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상호업무에 있어서 보완과 협력이 절실한 관계에 있다. 기술교류회의 내용은 KARI의 연구업무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KIMM의 항공기 소재부품 개발에 대한 업무를 소개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기술교류회를 통해서 항공기 부품에 양 기관의 연구영역과 정의에 대해서 역할이 정립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기계연구원 하재우)

가스터빈재료 기술교류회 개최

한국기계연구원 창원분원에서는

지난 5월 18일에 50여명의 업체, 학회, 연구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4회 가스터빈 재료기술교류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교류회에서는 "100kW급 항공용 보조동력장치 개발"(이대성 박사, KARI), "단결정 초내열합금 개발 동향"(이재현 창원대 교수), "축류형 가스터빈개발"(오군섭 박사, KIMM), "베인용 단결정 합금 개발"(유영수 박사, KIMM)에 대한 주제로 2시간 30분 동안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지난 1999년 6월 창원에서 첫 교류회가 개최된 이래, 분기별로 한번씩 열리는 가스터빈 재료기술교류회는 가스터빈 재료 및 설계 분야의 국내 전문가들이 가스터빈 관련 연구동향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기술교류의 장으로서, 대학, 연구소 및 산업계의 관련자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본 교류회는 선진 연구그룹의 연구 방향 및 내용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향후 국내 항공·우주 분야 산업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결성되었다.

(교류회 가입문의 : 055-280-3322 박노광)

AFRA, 2000년 제1차 산학연관 추진위원회 개최

항공우주 부품소재 공동연구단지(AFRA)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기계연구원은 산업자원부, 대신금속(주), 한국항공(주) 등 10

개 산·학·연·관 대표기관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0년도 제1차 산학연관 추진위원회를 지난 5월 24일에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AFRA 3차년도 사업의 중간실적 보고와 4차년도 구매장비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또한 세계 3대 엔진회사인 영국의 롤스로이스사와의 기술협력에 대한 추진계획 발표와 산업체 의견수렴이 있었다.

위원들은 유압프레스장비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대책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또한 AFRA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체 기술지원 역량과 연구자원에 대한 산업체 홍보가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홍보강화를 통해서 AFRA 사업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특히 산업자원부 산업기계과장에게는 연구자원의 국가적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타 연구기관과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도록 장비구매의 중복성 지양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끝으로 4차년도 사업으로 구매될 표면처리장비 일종인 EB-PVD 장비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EB-PVD장비 도입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삼성테크윈 등 활용예정업체와 한국기계연구원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적정한 장비규모와 도입방법을 강구하도록 의결하였다.

(기계연구원 하재우) ☎